



IT 외래어 표기법 통일 불가능한 일인가 아직도 '제각각' 방안은 있다

2-2

정보통신 용어의 표기법이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및 업계의 발전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표기하는 방법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각 언론매체마다, 각 업체마다 정보통신 용어의 사용이 달라 이에 대한 통일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소 귀에 경 읽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정보통신 용어를 정부가 일일이 통제할 수 없으며, 언론매체나 업체들 스스로 기존의 관행을 버리려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 재 IT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 용어들은 외래어가 대부분이다. 정보통신 용어가 잘못 사용되는 것은 이 외래어를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한글은 다른 나라의 언어와 달리 모음이 유달리 발달되어 있어 더욱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한글이 이처럼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보니 이 표기를 둘러싸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 지도 모른다. 또 한국인들의 발음 특성상 'ㄱ'나 'ㅇ', 'ㄷ' 보다는 'ㄴ'를 더 선호함으로써 표기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과 혼란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지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일부로 시작됐다. 당시 규정은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2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1958년 문교부 국어심의위원회 외래어 분과위원회에서 제정한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거쳐 1986년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에 이

르고 있다. 그 이후 몇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쳤지만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가 외래어 표기법상 명시된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는 규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1987년부터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명과, 인명, 일반용어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어 90년대 이후 쏟아진 정보통신 용어를 소화해내지 못한 것이 결론적으로 오늘의 혼란을 부른 것이다.

또한 국어연구원에서 제정한 외래어 표기 용례는 용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정보통신 용어와 같은 세부적인 용어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과 함께 용례 자체도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우를 범했다. 예를 들어 애초의 용례집에는 '가톨릭'으로 표기했지만 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결국 '카톨릭'으로 선회했으며, 웹(Web)도 초기에는 '웨브'로 표기했다가 최근에 와서야 웹으로 변경했다. 특히 용례집은 1995년경부터 인터넷 용어가 무수히 등장하면서 그 의미를 상실

해버렸다. 그 대표적인 예가 'Internet'이라는 용어의 표기였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Internet은 '인터넷'과 '인터넷트' 두 표기 모두 옳다. 즉 영어의 표기법 제 1항의 1조에 의하면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인터넷'의 표기는 맞다. 마찬가지로 제 10항에서 '따로 쓸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트'라는 표기 역시 맞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은 비단 인터넷이라는 용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몇 해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Windows'라는 용어 역시 4가지의 혼동된 용례를 보인다.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더라도 '윈도', '윈도우', '윈도스', '윈도우즈'라는 표현 모두가 가능하다. 또 'Data'도 발음과 어문규정상 '데이터' 표기가 맞지만 바꾸는 게 쉽지 않아 '데이타'로 굳어진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점은 외래어 표기법의 어문 규정이 모호한 데서 비롯된다. 또 이로 인해 외래어 표기의 용례 역시 일부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택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외래어 표기를 전담하고 있는 김세중 부장은 “어문 규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Gag, Bag, Zigzag와 같이 같은 형태의 글자인데도 서로 다르게 발음되는 것을 어문 규정만으로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과 업체들의 용어표기 오류와 독선

Digital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디지털’로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을 따르자면 ‘디지탈’이 옳다. A신문사는 아직도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다른 신문들은 모두 디지털로 표기하고 있는데, 홀로 ‘디지털’로 표기하는 것은 무슨 심보일까? B일보의 경우도 지난해 초까지 ‘인터넷’을 고집하다 결국 ‘인터넷’으로 선회했다. C일보는 ‘슈퍼’를 ‘수퍼’로 표기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 일간지의 편집국장이 정부언론 외래어심의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편집국의 모든 기

자들이 바꾸고 싶어도 뒷분이 고집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씁쓸함으로 남는다.

신문매체의 경우는 그래도 정부언론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에서 공동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용어를 제외하고는 통일되어 있는 편이다. 문제는 정보통신 용어를 비롯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전문 매체들이 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어 통일화, 대책은 없나

올바른 용어를 이끌어야 할 언론매체들마저 헛갈리고 있으니 IT관련 업체들의 사정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 업체들의 용어 사용에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체명과 제품명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일반 보통명사의 경우 충분히 표기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업체명과 제품명은 이미 고객들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정부측에서도 상호명과 상품명에 대한 상표등록을 허가해준 마당에 뒤늦게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라는 주장 역시 타당치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어연구원이 전문적인 용



어까지 커버하기엔 무리가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정보통신부가 거들 어줘야 하는데도 외래어 표기에서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미미하다. 기껏해야 최근 펴낸 정보통신 용어 대사전이 전부다. 하지만 이 사전 역시 용어풀이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각 언론매체들의 아집 및 독선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한 신문사의 경우에서 보듯 몇몇 어르신(?)들의 고지식함 때문에 전체 기자들이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각 매체들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마치 불가침영역처럼 ‘묻지마 용어’가 되어 버린 느낌도 없지 않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용어의 통일화에 있어서 만큼은 타 언론과의 협의 및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KICRA**

원어	표기 용례	원어	잘 못쓰는
Internet	인터넷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Intranet/Extranet	인트라넷/엑스트라넷	인트라넷/엑스트라넷	텔레커뮤니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Netscape	네트스케이프	넷스케이프	컨트롤러, 컨트롤러
Windows	윈도스, 윈도우, 윈도우즈	윈도	넷웨어, 넷웨어
Fortune	포춘	포천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
Directory	디렉토리	디렉터리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
Workshop	워크샵, 워크샵	워크숍	코맨드, 커맨드
Network	네트웍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테크놀러지, 테크놀로지
Contents	컨텐츠, 컨텐트, 콘텐츠	콘텐츠	다큐먼트, 문서
Component	컴포넌트	컴포넌트	아키텍처, 아키텍처
Digital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플래쉬, 플래시
Portal	포탈	포털	모바일, 모바일
Total	토탈	토틸	워크그룹, 워크그룹
Leadership	리더쉽	리더십	유니트, 유닛
Settop Box	셋탑박스	셋톱박스	버추얼, 버추얼
Framework	프레임웍	프레임워크	메시지, 메시지
Business	비즈니스	비즈니스	애플릿, 애플릿
Desktop	데스크탑	데스크톱	애플톡, 애플토크
Signal	시그널	시그널	패킷, 패킷
Ethernet	이더네트	이더넷	프록시, 프록시
Data	데이터	데이터	시스템즈/네트웍스, 시스템/네트워크

(표) 정보통신 용어의 표기 용례

출처 : 국립국어연구원